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⑥ 나한봉(羅漢峰)



공양 받을 만한 봉우리

북한산 의상봉능선의 문수봉과 나월봉 사이에 있는 봉우리로 높이는 해발 688미터이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에 속한다. 나한봉은 나한에서 그 명칭이 유래한다. 나한은 아라한(阿羅漢)의 약칭으로, 일체의 번뇌를 끊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 중생의 공양에 응할 만한 자격을 지닌 불교의 성자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절에는 대부분 나한전(羅漢殿)이 건립되어 있어서 심유나한이나 오백나한을 봉안하고 있다. 심유나한이란 석가모니의 교화를 받았던 열여섯 명의 뛰어난 제자를 일컫는다. 오백나한은 석가모니 생전 시의 제자나 석가모니 열반 후 제일 결집 때 왕사성에 모였던 장로 오백 명을 두루 지칭하는 말이다. 민간에서는 나한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여겨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오백나한은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특별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에 나한 신앙이 크게 유행하여 국가적인 행사로 나한제를 지내기도 했다.

순간도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다. 낮에는 피약벌이 내리찍는 밤에 나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겨우 방에 들어와 쉬려고 하면 밤늦게 까지 새끼 꼬는 일을 시켰습니다. 장작을 때는 일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는 일도 모두 남자의 몫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족을 돌보는 일까지 그야말로 끝없이 일만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잣집에서는 남자를 보살펴 주지 않았습다. 일만 하던 남자는 서른이 넘도록 장가도 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피약벌에서 일하다가 그늘에 엎드려 자는 누렁이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긴 탄식이 나왔습니다. 나는 짐지는 누렁이만 못하 사람이구나. 만일 내게도 다음 생이 있다면 차라리 돌멩이로 태어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독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 보니 스님 한 분이 정성껏 목탁을 치며 시주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행색은 남루했고 몹시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색한 주인은 쌀 한 톨은 고사하고 물 한 그릇도 줄 수 없으며 스님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보다 못한 남자는 자기가 먹으려고 받아 둔 보리밥 한 덩어리를 스님의 바랑에 넣었습니다. 스님이 함장한 후 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글을 배우지 못한 남자

공덕받는 '아라한'에서 유래

이름없는 작고 못생긴 바위

전생 공덕으로 '큰 봉우리' 이뤄

는 무슨 뜻인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이 독경을 마치고 돌아서려 할 때 남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의 독경 중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잡았기 때문이지요.

"스님,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없어짐이 무슨 뜻입니까?"

스님이 그윽한 시선으로 남자를 바라보더니, 손을 들어 삼각산을 가리켰습니다. 남자가 스님의 손가락을 따라 삼각산을 바라보니 드높은 하늘 아래 바위로 덮인 아름다운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저 봉우리가 문수봉이네. 지성으로 문수보살을 염하도록 하거나."

스님은 말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전생을 알고 나서 더 열심히 문수보살의 명호를 외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새벽이 떠오를 때 전생에서 보았던 스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정성이 다른 바위의 공양을 받을 만하구나."

그 순간, 내 몸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지금의 봉우리처럼 우람해졌습니다. 주위의 바위들은 나를 아라한봉우리라고 부르며 절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나를 나한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애기꾼> 신이산

戰火 속 상생을 전하려던 日 고승의 가르침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고찰을 가다

⑥ 교토 텐류지 일원



교토 텐류지(天龍寺)의 정원. '치센카이유시키(池泉回遊式)' 정원으로 그 규모가 크고 아름답다. 이 정원은 창건자인 무소 소세키 스님의 상생의 화두가 담겨 있다.

1464년 오닌(應仁)의 난은 쇼군의 후계자를 둘러싸고 쇼군 다이묘들의 대립이 얽히면서 11년간이나 지속된 내란이다. 무로마치 시대 가장 강력한 쇼군이었던 요시미즈가 죽은 후, 쇼군 다이묘의 힘은 쇼군의 힘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쇼군과 다이묘의 대립, 오닌의 난은 하극상의 전국시대를 여는 서막이었다. 11년의 전란으로 천년 고도(古都) 교토는 황폐해졌으며, 막부의 건물은 물론 텐류지(天龍寺) 등과 같은 사찰들은 잿더미가 됐다.

그로부터 450년이 지난 현재, 텐류지 일원은 완연한 관광지이다. 아라시야마(嵐山)의 대나무 숲, 도롯고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일본은 물론 전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텐류지는 이 같은 관광지구의 중심에 있다.

텐류지는 일본 불교 대표 선종 종단인 임제종 텐류지파의大本산으로 교토 5산 중 제1위 사찰이기도 하다. 원래는 왕실 별궁으로 건립됐으나 1339년 고다이오 일본 천왕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무소 소세키(夢窓疎石, 1275~1351) 스님에 의해 사찰로 개축됐다. 창건 당시에는 150여개의 전각이 들어선 엄청난 규모였으나 오닌의 난으로 인해 현재의 모습으로 축소됐다. 그래도 전해져 내려오는 전각들의 규모는 생각보다 크다.

텐류지 곳곳에는 명승들이 많다. 법당 전장에 있는 '운룡도(雲龍圖)'는 텐류지에 들리면 꼭 봐야 하는 작품이다. 이전에는 메이지 시대 활약했던 스즈키 쇼년 화백의 운룡도가 있었으나, 수복이 어렵고 손상이 심해 지금 그림은 현대 일본화의 거장이었던 가야마 마타조(加山又造, 1927~2004) 화백이 그린 그림으로 대체됐다. 말년의 가야마 화백이 1997년 그린 운룡도(12.6m×10.6m)는 마치 실제하는 듯 역동적이다. 날카로운 눈은 법당 안 어디를 걸어도 자신을 주시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텐류지 법당 전정의 운룡도



선불장 전각. 법당으로 사용된다.

임제종 본산 1위 사찰 공고히 무소 소세키 스님이 조성한 지천회유식 조원지 정원 눈길

이 같이 거대한 용을 그려놓은 이유는 예로부터 불을 다스린다는 용의 힘으로 법당이 다시는 전화(戰火)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라는 일본인들의 염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텐류지를 대표하는 곳은 '방장(方丈)'이라는 편액이 걸린 전각이다. 대부분의 일본 사찰이 그렇듯 방장 전각에는 회랑을 돌며 감상할 수 있는 '소젠지(曹源池)' 정원이 있다. 사찰 정원을 처음 조성

했다고 알려진 무소 스님이 조성한 이 정원은 흰 자갈과 모래, 돌로 그려내는 카레산스이(枯山水)와는 다른 전경을 자랑한다.

조형 양식도 조금 다르다. 용안사가 카레산스이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텐류지는 '치센카이유시키(池泉回遊式)'로 중앙에 있는 연못 주위를 돌며 감상하도록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도 용안사의 정원보다 훨씬 웅대하다. 돌과 바위로는 폭포를 만들었고, 크고 작은 바위들은 어딘가의 풍광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했다. 자신이 본 삼산유곡의 경관을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했던 일본 특유의 미학이 이곳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텐류지와 정원을 창건한 무소 스님은 이 정원 조성을 위해 패전 포로들을 이용했다. 일편 보기에 승려가 대립 세력을 노예로 이용하는 것이 비인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속뜻은 달랐다고 한다.

앞서 오닌의 난을 거론했듯이 당시 일본은 하극상이 빈번히 일어났던 전란의 시기였다. 천황, 막부, 막부의 반대 세력 등 치정자들이 한데 뒤엉켜서 할 것 없이 아귀 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당시 치정자부터 민초들까지 승양을 받았던 무소 스님은 달랐다. 이들 모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무소 스님은 스스로 원수를 두지 않고 권력자들에게 용서하고 상생하는 삶을 강조했다. 그래서 죽은 천황을 기리는 사찰을 창건토록 한 것이다. 패전 병들에게 사찰의 정원을 조성하는 불사를 책임지게 한 것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 같이 텐류지의 저변에는 대립과 갈등의 전란 속에 '상생'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살았던 무소 스님의 원력이 담겨 있는 것이다.

mot79@hyunbul.com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 불교 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진로·적성·상담 안내

인재 양성 >

-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 상담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견제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흥연 (010-7925-4749)

C.A.C 분석서 >



◇프로필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 ◇ 동방대문대학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 ~ 5시)
- ◇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 ◇ 저서 : 규명 (1, 2, 3권 : 한숨미디어) 실천성명학 - 상원문화사
-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